

“공정의 ‘인간 내비게이션’ 남한서도 힘차게 달려요”



제1부-희망 찾기 백두에서 한라까지 드라이버 김영남씨

‘백두에서 한라까지, 평양에서 서울까지.’ 남북을 아우르며 전국 방방곡곡을 돌고다니는 탈북청년 김영남(40)씨. 그의 직업은 드라이버다.

“북한에서 운전원은 인기가 좋아요. 수입이 안정적이거든요. 북한에서 7년을 운전했어요. 북한 전역을 돌아다녔죠. 가장 경치가 좋은 곳은 묘향산이었어요. 산이 묘하게 생겼다고 묘향산이래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경치 좋은 곳 대부분이 그래요. 그곳엔 김씨 일가의 별장이 있거든요.”

◇금강산보다 빼어난 칠보산을 아시나요
그에게 듣는 북한 여행은 즐겁다. 그에게 물었다. 북한 여행지 중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답은 금강산도 묘향산도 아니었다. 함북 칠보산이었다. 금강산만큼 칠보산도 내칠보·외칠보·해칠보로 나뉘는데, 기암절벽이 금강산보다 빼어나다고 했다.

북한 도시의 특징도 들려줬다. 물품이 가장 저렴하게 거래되는 함북 나선, 돈놀이(가짜달러 유통) 하는 과학도시 평남 평성, 북한말의 상징 ‘내래’의 고향 신의주, 혁명 전통의 본고장 양강도 혜산, 군수공장이 밀집한 자강도, 북한의 대표 피서지 송도원해수욕장이 있는 강원도 원산 등등.

그는 남한(한국)도 섭렵했다. 동해·서해·남해 등 해안을 따라 일주 했고, 제주 한라산에도 올랐다. 서울은 택배일을 하면서 골목골목을 누볐다. 지금도 그는 일주일에 4차레 이상 하루 700km를 달린다. 삼천리 방방곡곡을 누빈 그는 “운전하길 잘한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영남씨는 북한 여행과 남한 여행의 차이는 ‘자유’라고 했다. 북한에는 자유가 없다. 도시와 도시를 이동하려면 반드시 ‘출장·여행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증명서 떼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다. 북한 주민들엔 사실상 여행이란 게 없다고 했다. 한국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가지만 북한엔 없다. 기껏해야 학교 주변에서 운동회를 하는 게 고작 이란다. 자신도 여행을 다닌 게 아니라 일 때문에 곳곳을 오갔고, 오가다보니 경치가 눈에 들어왔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한국 생활 초기엔 ‘어떻게 자유를 누리야 하나 막막했다’고 털어놨다.

◇일수하다 걸려 북한 등저
영남씨는 1976년 평양에서 태어났다. 2남1녀 가운데 막내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 할아버지는 조국광복회원으로 ‘도대’(훈신성분)가 좋았다. 아버지는 최고인민회의 고위공직자였고 어머니도 노동당에서 일했다. 그는 북한에서 생활한 22년이 지금보다 훨씬 윤택했다고 회상했다. 국정원에서조차 ‘왜 한국에 왔나’며 의아해 할 정도였다.

평양에서 잘 나가던 아버지는 ‘아침편’들에 밀려 양강도로 좌천됐다. 삼수감산이 있는 산골이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지방이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인민위원회 간부였고, 어머니는 당비서였기 때문이다.

타악소-유치원-인민학교-고등학교를 거쳐 군대에 갔다. 하전사(일반사병)로 10년간 복무했다. 2002년 제대하면서 김일성종합대학교 입학 추천서를 받았다. 제대 후 얼마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방황하다가 사회에 진출했다.

북한은 누구나 직장에 다닌다. 다만, 월급을 보고 직장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군당 또는 시당의 책임비서 월급이 고작 쌀 1~2kg정도이니 월급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직장에 이름만 걸어둔 채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직장에는 뇌물을 바치고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다. 그도 그랬다. 적(籍)을 둔 직장에다가 한달에 3000~5000원을 바치면서 장사를 했다. 그러다가 밀수에 손을 댔다. 밀수품은 금속으로, 구리·동 등을 모아 중국으로 반출하는 일이었다. 불법이었지만 짝짤했다. 대신 항상 위험이 도사렸다.

2007년 7월 어느날, 구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돈을 쟁겨 강을 막 건넜는데 김씨가 이상했다. 안면이 있던 국경경비대가 아닌 보위사령부였다. 보위부의 압행감찰이었다. 걸리면 풍비박산이었다. 방법이 없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다시 강을 건넜다. 그것이 북한에서 삶의 마지막이었다. 어느 탈북민들처럼 살기 힘들어 압록강을 넘은 것이 아니라 밀수하다 걸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만 것이다.

고위공직자 아버지·노동당원 어머니
北에서의 22년은 남한생활보다 윤택
운전원 하다 모든 것 버리고 강 건너
전국 자동차부품 공급하며 자유 만끽
“올해 친구 만나고 싶다... 여자친구를”

◇‘공정의 마인드’가 성공 요인
영남씨의 ‘고난의 행군’은 이 때부터 시작했다. 중국 심양을 향해 50일동안 걸었다.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었다. 버스를 타다가는 공안에 잡힐 것 같아 빌어먹으며 무작정 걸었다. 6일동안 한끼도 먹지 못하고 굶은 때도 있었다. 그러나 도둑질은 하지 않았다. 자칫 걸리면 북송될까 봐 두려웠다.
다행한 것은 고등학교 때 중국어를 조금 배운 탓에 ‘빌어먹을 수 있었다’는 거였다. 그는 북한의 영재학교인 제1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영어와 일본어·중국어를 배웠다. 지인을 찾아 연까지 걸어 걸어 왔는데 지인은 단속이 강화돼 위험하다며 빨리 내륙으로 피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양에 가보라고 했다. 여기보다 안전하다며, 그는 다시 걸었다.

심양·산둥·청도 등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2년을 지냈다. 그러다 한국을 알게 됐고, 한국행을 결심했다. 라오스·태국을 거쳐 2009년 6월 아침 7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국정원 가는 길에 어마어마한 광경을 목도했다. 북새통을 이룬 출근차량들이었다.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낯선 환경을 혼자 개척해야 한다는 압박도 몰려왔다.

한국서 살아가려면 직업이 필요했다. 좋아하는 것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그게 운전이었다. 그리고 7년이 지났다. ‘인간 내비게이션’이 됐다. 그는 현재 현대글로벌비스 제제조부품 총판업체인 ‘세인상사’에서 일하고 있다. 충청·경상도까지 자동차부품을 공급한다. ‘탈북자’라는 휴대와 모멸을 딛고 과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한국에 온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감사해 했다. 또 ‘공정의 마인드’가 여기까지 온 동력이 됐다고 했다. “자신의 집이 있고, 화려한 차가 있고, 가족이 있고, 돈이 있어 성공한 것이 아니라 공정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게 성공이다.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올해는 친구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특히 여자친구를.

/글·사진=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남북 삼천리 방방곡곡을 돌아본 탈북청년 드라이버 김영남씨가 최근 광주시 서구 광주전남북한이주민지원센터에서 북한 도시의 위치와 특징 등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하나센터 탈북 자녀에 입학 축하금

광주전남북한이주민지원센터(광주하나센터)는 최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센터 2층 교육장에서 탈북가정 청소년 예비중학생 11명에게 입학 축하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축하금은 광주지방변호사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단이 30만원, 서림초등학교 학생들이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기금 60만원, 월광가톨릭학교 학생들이 모금한 15만원 등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윤승현 지원센터 소장의 부모·자녀의 건강한 대화법, 자녀 양육과 청소년기 특징에 대한 특강과 함께 학부모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광주전남북한이주민지원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자활을 돕고 있다. 청소년 사회문화캠프·진로교실 운영,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력과 자신감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정일 사망 전후 북한군 기강해이 심각 내부 문서 드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전후해 북한군의 군기해이가 심각해 군내 범죄가 대거 발생하고 탈영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사실이 북한군 내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북한군 내에서도 한류 드라마가 인기가 높아 집중 단속에서 7000건 가까운 영상이 적발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정은 집권 이후 핵개발에 집중된 탓에 북한군에 물자와 인력 부족이 심했던 것이 이런 군 기강 해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도쿄신문은 평양 남쪽 남포에 위치한 북한 235부대 정치부가 2010~2013년 작성한 문서 1300건을 분석한 결과, 이 시기 살인·강도·탈영 등 각종 범죄가 횡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전했다. 부대 내에서 정치부는 노동당의 명령을 부대에 전달하고 부대의 동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김정은의 집권 전인 2010년 9월 작성된 이 보고서는 “작년(2009년) 일어난 (군내) 법률위반은 강도 11건, 인민 구타와 재산 절도 88건 등 불량한 행위 11건 등 127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군 제3군단은 인민을 때려 숨지게 하는 중대한 정치적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각급 지휘관이 엄격한 명령지휘체계를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2011년 5월 문서에는 “탈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2013년 6월 정치장교 대상 문서에는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가 극한에 이르렀다. 인민군 부대는 무법천지로 무풍지대”라는 김정은의 비판이 적혔다. /연합뉴스

말을 배워라, 사람들과 어울려라, 할말은 하라

김영남씨의 한국 정착 조언

매칭·가이드·슬럼프·멘붕·게이트·인간 내비·피드백·스타일... 인터뷰 도중 김영남씨가 사용한 단어들이다. 그는 여는 탈북민들과 달리 외래어를 자유자재로 표현했다. 그러다보니 탈북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영남씨는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려면 “말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래어를 습득하라’고 권했다. 그래야 자신감이 생긴다면서.

그는 자신이 했던 공부법을 소개했다. 드라마나 음식 문화 등을 배우려면 적재적소에 써먹을 수 있고, 상대방과 훨씬 빨리 친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튀어나오면 인터넷으로 찾았다. 쓰고 따라 읽으며 익혔다.

영남씨는 또 “사람들과 어울려라”고 조언했다. 다가가서 마음을 읽어야 한다고 했다. 좋은 소리를 하든, 나쁜 소리를 하든 다가가는 것이다. 그래야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다. 그리고 “할말은 하라”고도 했다. 잘못된 게 없다면 당당히 말하라는 것이다. 마음없이 하면 자기만 손해라고 했다.

마지막 팁으로 “지역 사회의 특성을 한가지씩 알아두면 유용하다”고 전했다. 광주하면 ‘5·18’ 또는 ‘민중화의 성지’ 등 기초지식 말이다. 사투리나 음식 문화 등을 배우려면 적재적소에 써먹을 수 있고, 상대방과 훨씬 빨리 친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혜은이 디너쇼

2017.04.11.(화)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5세 미만의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165,000 원 (VAT포함)

Hye Eun Lee

2017 Dinner Show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